

원화 커버드본드 3년 만에 발행 재개

2024.08.13

금융/구조화평가본부

구조화2실

이재우

수석애널리스트

☎ 02- 787-2293

jaewoo.lee@kisrating.com

구조화2실

김홍미

실장

☎ 02- 787-2243

hmkim@kisrating.com

Executive Summary

▣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재개

2024년 8월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가 3년 만에 발행이 재개되었다. 원화 커버드본드는 2019년 발행이 시작된 이래 발행규모가 감소하다가 2021년을 마지막으로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당사는 (주)국민은행과 (주)신한은행이 2024년 8월 발행하는 원화 커버드본드에 대하여 AAA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하였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기초자산집합(이하 “커버풀”)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으로, 우선변제권, 파산절연성 그리고 이중상환청구권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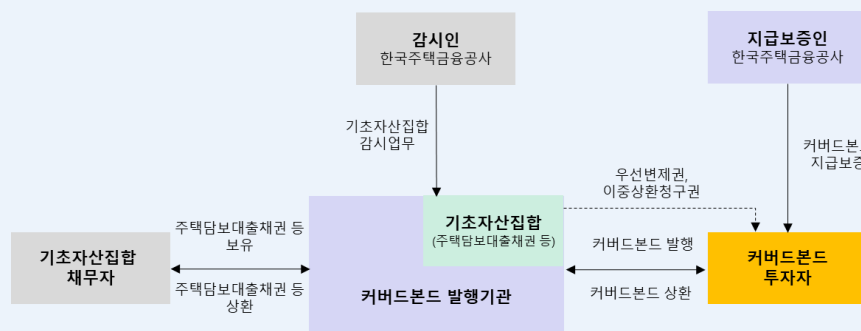
이번에 발행되는 커버드본드는 2019년 ~ 2021년에 발행된 기존 커버드본드와 발행구조상 차이가 있다. 첫째, (주)국민은행과 (주)신한은행이 2024년 8월에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보강 효과가 제고되었다. 따라서 동 커버드본드는 1) 발행기관이 일차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2) 커버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기존 커버드본드와 동일하게 이중상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적으로 원리금을 지급보증하고 있어 사실상 삼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만기 10년 커버드본드가 국내 최초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장기 자금 조달을 통해 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대금을 기초로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고 공표하였다.

커버드본드 발행 예정 내역

발행기관	회차	신용등급	발행액	발행일	만기일
(주)국민은행	제2024-1-1회	AAA	2,000억원	2024.08.13	2029.08.13
	제2024-1-2회	AAA	1,000억원	2024.08.13	2034.08.13
(주)신한은행	제2024-1회	AAA	3,000억원	2024.08.13	2034.08.13

커버드본드 발행구조



▣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바탕 커버드본드 활성화 기대

금융당국은 2024년 5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커버드본드 활성화 대책은 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직접적 지원과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대책 등으로 나뉜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원 역할로는 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②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커버드본드의 제도적 개선 부분은 발행기관 측면에서는 예대율 산정 추가 반영, 발행·공시 인프라 개선 등이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한은 적격담보 편입, 위험가중치 및 LCR 적용기준 명확화, 시가평가테이블 공시 등이 있다.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

구분	제도 내용	효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 일정 요건의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 일정 요건: ① 발행채권 만기 5년 이상 & 「이중상환채권법」 등 준수 ② 주택담보대출채권 100%로 구성,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제외, 커버폴 內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의 목표비율 이상 (자체 취급 고정금리 비중 30% 이상 등)	- 발행사: 장기자금 조달 및 조달금리 절감 효과 - 투자자: 높은 신용도의 신규 장기채권 투자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 (2024년 4분기 개시 예정)	안정적인 투자수요처 확보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저변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

구분		현행	제도 개선	효과
발행 측면	예대율 개선	• 은행의 원화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 가능	•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 추가 부여 (24년 9월 중 예정)	•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공급재원(원화대출금)으로 활용 가능
	발행·공시 인프라 구축	• 발행 관련 서류 제출 시스템 부재 및 자료제출 심사가 수기로 진행	• 커버드본드 등록신청 및 공시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 (24년 4분기 중 예정)	• 발행기관의 발행 관련 서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의 공시 접근성을 개선
투자 측면	커버드본드의 한은 적격담보 편입	• 커버드본드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적격담보)으로 활용할 수 없어 대체자산 대비 불리	•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적격담보로 편입 (24년 9월)	• 투자자의 RP 조달 등 커버드본드 활용도 제고 및 유동성 관리 용이
	보험사·은행이 보유하는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명확화	• 은행·보험사가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투자시 해당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명확하지 않음	•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보험사·은행의 신용위험액 = 0 임을 명확화	• 투자자 불확실성 제거 • 커버드본드 투자 통한 자본 활용도 제고
	LCR 적용기준 명확화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관련 이번에 새로 발행되는 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및 주금공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부재	• 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및 주금공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마련	• 투자자 불확실성 제거
	커버드본드 시가평가테이블 공시	• 은행채 등 타 채권과 달리 커버드본드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 커버드본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시가평가테이블)를 공시 • 보증부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제공까지 확대	•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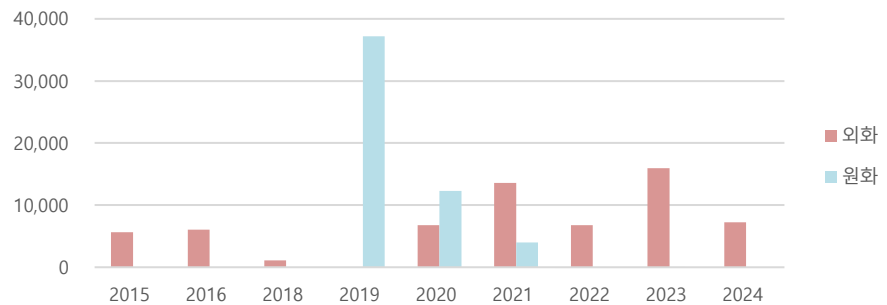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1. 커버드본드 시장 현황

발행유인과 투자수요
모두 부족하여 2021년을
마지막으로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중단

국내 은행들의 외화 커버드본드는 발행규모가 크지 않으나 발행이 지속되어온 반면, 원화 커버드본드는 금융당국에서 2019년 발표한 커버드본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2019년 최초로 발행된 이후 발행액이 계속 감소하여 결국 2021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발행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원화 커버드본드에 대한 발행유인 및 투자수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활성화대책도 2019년 이후 추가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은 중단되었다.

연도별 국내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액 (단위: 억원)



주) 외화 발행금액은 발행 당시 스왑금리를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우선 발행사 입장에서는 은행채 조달 대비 추가적인 비용 및 절차적 번거로움을 감내하며 원화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은행채와 커버드본드의 신용등급이 모두 AAA로 동일하다 보니, 커버드본드와 은행채 간의 조달금리 측면의 장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시중금리가 크게 하락하여, 커버드본드를 통한 조달의 필요성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금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여신 상당부분이 변동금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 장기 고정금리 조달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감소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고 유통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5년물 위주의 발행으로 장기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불규칙한 발행규모 그리고 시가평가 제도 미비 등으로 투자기반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반면, 외화 커버드본드는 국내 은행들의 발행이 매년 꾸준히 이어져왔다. 외화 커버드본드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로부터 은행채 신용등급 대비 Notching Up된 AAA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은행들은 신용등급 상향으로 조달금리를 절감할 수 있고 더불어 다변화된 외화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 내역

발행기관	회차	신용등급	발행액	발행일	만기일
(주)국민은행	제2019-1-1회	상환	4,000억원	2019-05-14	2024-05-14
	제2019-1-2회	AAA	1,000억원	2019-05-14	2026-05-14
	제2019-2회	상환	4,000억원	2019-06-25	2024-06-25
	제2019-3회	상환	4,000억원	2019-07-23	2024-07-23
	제2019-4-1회	AAA	3,000억원	2019-08-14	2024-08-14
	제2019-4-2회	AAA	2,000억원	2019-08-14	2026-08-14
	제2019-5회	AAA	1,500억원	2019-09-03	2024-09-03
	제2019-6회	AAA	1,100억원	2019-09-24	2024-09-24
	제2019-7회	AAA	600억원	2019-12-10	2024-12-10
	합계		2조 1,200억원		
(주)신한은행	제2019-1회	AAA	2,000억원	2019-10-10	2024-10-10
	제2019-2회	AAA	3,000억원	2019-12-20	2024-12-20
	합계		5,000억원		
(주)우리은행	제2019-1회	AAA	3,000억원	2019-12-02	2024-12-02
	제2020-1회	AAA	2,000억원	2020-05-12	2025-05-12
	제2020-2회	AAA	3,000억원	2020-08-20	2025-08-20
	합계		8,000억원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2019-1회	상환	5,000억원	2019-06-27	2024-06-27
	제2019-2회	AAA	1,500억원	2019-11-13	2024-11-13
	제2019-3회	AAA	1,500억원	2019-11-20	2024-11-20
	제2020-1회	AAA	2,500억원	2020-10-16	2025-10-16
	제2020-2회	AAA	1,600억원	2020-11-19	2025-11-19
	제2021-1회	AAA	1,500억원	2021-05-28	2026-05-28
	제2021-2회	AAA	2,500억원	2021-07-08	2026-07-08
	합계		1조 6,100억원		
수협은행	제2020-1회	AAA	1,100억원	2020-07-20	2025-07-20
	제2020-2회	AAA	1,000억원	2020-08-26	2025-08-26
	제2020-3회	AAA	1,100억원	2020-09-25	2025-09-25
	합계		3,200억원		

주)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수협은행 신용등급은 KR/NICE 신용등급임.

국내 은행 외화 커버드본드 발행 내역(2023~2024년)

발행기관	회차	신용등급	발행액	발행일	만기일	비고
(주)하나은행	KEB Hana Series 2	AAA	6억 유로	2023-05-04	2026-05-04	S&P/Fitch
(주)국민은행	Kookmin Series 2023-1	AAA	5억 유로	2023-10-13	2027-04-13	S&P/Fitch
(주)신한은행	Shinhan Bank Global Covered Bond Programme 2024-1	AAA	5억 유로	2024-01-29	2027-01-29	Moody's/Fitch

2. 2024년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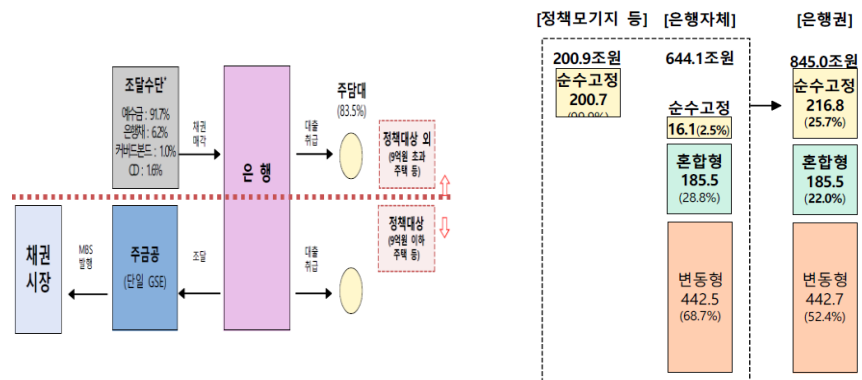
금융당국은 2023년 5월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위주의 주담대 구조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필요를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변동금리 대출로 금리 리스크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에 따라 고정금리로 취급하는 주담대도 대부분 혼합형(일정기간 고정, 이후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은행의 조달구조가 대부분 예수금 위주로 조달기간이 짧고, 금융소비자도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위주의 주담대를 선호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대부분 정책모기지지만 공급이 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을 통한 적극적 정책모기지 공급으로 시중의 고정금리 대출 수요를 흡수했고, 이로 인해 민간 금융회사에서 스스로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공급할 유인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주담대 공급체계

금리형태별 주담대



주)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2022년 말)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공급하는 주담대 중 순수 고정금리의 비중은 25.7%이며,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이 공급하는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의 비중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자료: 금융위원회

민간을 통한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커버드본드 활용 방안 모색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공급에서 전환해,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행정지도에 따른 고정금리 비중 목표에 '은행 자체 취급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24년 말 30%)을 추가하고, 고정금리 취급 비중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방안 검토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고정금리 취급을 확대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차원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다변화해, 정책모기지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해 민간모기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2024년 5월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공급을 위해 이에 대응하는 장기 고정금리 자금 조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커버드본드를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커버드본드 활성화 대책은 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직접적 지원과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대책 등으로 나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커버드본드 지원 역할로는 ①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②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커버드본드의 제도적 개선 부분은 발행사 측면에서는 예대율 산정 추가 반영, 발행·공시 인프라 개선 등이 있으며, 투자자 측면에서는 한은 적격담보 편입, 위험가중치 및 LCR 적용기준 명확화, 시가평가테이블 공시 등이 있다.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역할

구분	제도 내용	효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 일정 요건의 주담대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 일정 요건: ① 발행채권 만기 5년 이상 & 「이중상환채권법」 등 준수 ② 주택담보대출채권 100%로 구성,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제외, 커버폴 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의 목표비율 이상 (자체 취급 고정금리 비중 30% 이상 등)	- 발행사: 장기자금 조달 및 조달금리 절감 효과 - 투자자: 높은 신용도의 신규 장기채권 투자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은행 발행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고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 (2024년 4분기 개시 예정)	안정적인 투자수요처 확보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저변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구분		현행	제도 개선	효과
발행 측면	예대율 개선	은행의 원화예대율 산정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 잔액을 원화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 가능	현행 1% 한도에 더하여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에 대해 별도의 1% 인정한도 추가 부여 (24년 9월 중 예정)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공급재원(원화대출금)으로 활용 가능
	발행·공시 인프라 구축	발행 관련 서류 제출 시스템 부재 및 자료제출 심사가 수기로 진행	커버드본드 등록신청 및 공시 등을 전자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개선 (24년 4분기 중 예정)	발행기관의 발행 관련 서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의 공시 접근성을 개선
투자 측면	커버드본드의 한은 적격담보 편입	커버드본드는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적격담보)으로 활용할 수 없어 대체자산 대비 불리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 적격담보로 편입 (24년 9월)	투자자의 RP 조달 등 커버드본드 활용도 제고 및 유동성 관리 용이
	보험사·은행이 보유하는 커버드본드의 위험가중치 명확화	은행·보험사가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투자시 해당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명확하지 않음	주금공이 보증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보험사·은행의 신용위험액 = 0 임을 명확화	투자자 불확실성 제거, 커버드본드 투자 통한 자본 활용도 제고
	LCR 적용기준 명확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관련 이변에 새로 발행되는 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및 주금공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부재	주금공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및 주금공 재유동화 증권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인정기준 마련	투자자 불확실성 제거
	커버드본드 시가평가테이블 공시	은행채 등 타 채권과 달리 커버드본드는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 커버드본드의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시가평가테이블)를 공시 - 보증부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기준수익률 정보 제공까지 확대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

자료: 금융위원회

3. 원화 커버드본드 3년 만에 발행 재개

2024년 8월 당사는 (주)국민은행 및 (주)신한은행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에 따라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 AAA 신용등급을 신규로 부여하였다.

커버드본드 발행 예정 내역

발행기관	회차	신용등급	발행액	발행일	만기일
(주)국민은행	제2024-1-1회	AAA	2,000억원	2024.08.13	2029.08.13
	제2024-1-2회	AAA	1,000억원	2024.08.13	2034.08.13
(주)신한은행	제2024-1회	AAA	3,000억원	2024.08.13	2034.08.13

원화 커버드본드는 2021년 마지막으로 발행된 이래 3년 만에 발행이 재개되었다. 금융당국이 2019년 발표한 커버드본드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원화 커버드본드는 2019년 약 3.7조원이 발행되었으나, 이후 2020년 1.2조원, 2021년 0.4조원을 마지막으로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번 발행은 금융당국이 2024년 발표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2024년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내 은행 5개사((주)국민은행,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 (주)우리은행, 농협은행(주))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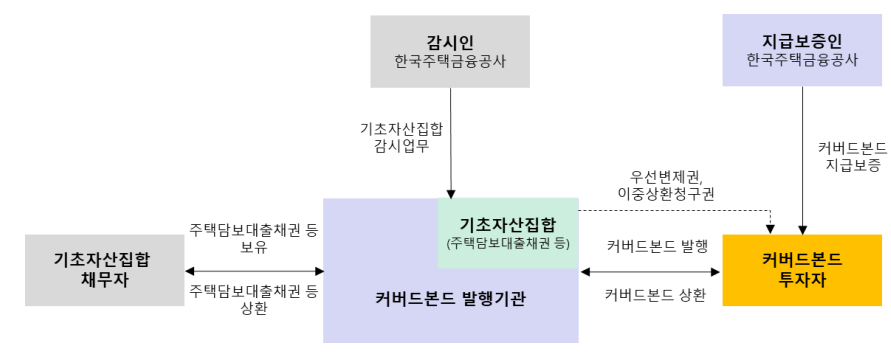
4. 금번 발행 커버드본드 발행구조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 제공

2024년 8월 (주)국민은행 및 (주)신한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는 2019년 ~ 2021년에 발행된 기존 커버드본드와는 발행구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여 신용보강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인 은행이 일차적으로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더불어 채권자가 담보물인 커버풀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채에 비해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발행 재개되는 이번 커버드본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커버드본드의 1) 발행사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2) 커버풀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는 이중상환청구권에 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삼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커버드본드 발행구조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발행

둘째, 만기 10년 커버드본드가 국내 최초로 발행되었다.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커버드본드는 5년물로 주로 발행되어왔으나, 이번 발행물에서는 10년물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10년 만기 커버드본드의 경우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한도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면서 발행유인이 증가하였고, 신한은행은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대금을 기초로 시중은행 중 최초로 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주택담보부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공표하였다. 국내 장기물 투자기반이 여전히 크지 않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0년물 커버드본드를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이 올해 하반기 중 출시될 예정으로 10년 장기물 커버드본드 발행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 글을 맺으며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개선 기대

커버드본드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주금공의 지급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들은 조달금리를 절감하고 투자자들은 커버드본드 관련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금공의 재유동화 프로그램이 가동될 경우, 발행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어 발행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예대율 관련 커버드본드의 추가 예수금 인정도 은행들의 커버드본드 발행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커버드본드가 한은의 적격담보로 인정되어, 보유자산의 담보차입 등 활용도가 높아지는 점 그리고 시가평가테이블 공시로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모두 커버드본드 발행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커버드본드 활성화로 은행의 장기조달이 늘어나면 이에 대응하는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도 늘어나고, 변동금리 위주의 주담대 시장의 질적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커버드본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금융시장 관계자의 많은 관심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제도가 마련됐으나, 자체 발행 은행채와 (지급보증) 커버드본드 간의 스프레드가 충분하지 않다면, 발행비용 등을 고려 시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커버풀과 발행사에 대한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의 경우 사실상 삼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하는 등 손실위험이 매우 제한적인 채권이다. 이러한 커버드본드의 특징을 시장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여, 발행 및 유통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장기적으로는 커버드본드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구조의 커버드본드가 발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민간 장기 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리 리스크를 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참여자들 각각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관리능력에 맞춰 리스크를 인수하고 관리하는 금융시장 체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만기 5년 이하의 커버드본드 또는 은행채가 주로 발행되어왔고, 이에 맞춰 취급되는 주담대의 실질 고정금리 기간도 5년 이하 단위였다. 다양한 만기 및 10년 이상의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민간 모기지 시장의 발전, 은행의 효율적인 듀레이션 및 금리 리스크 관리, 그리고 가계부채 및 금리 리스크 관련 금융시장의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재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